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1) 본부의 조사연구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20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과거 전염병 발생 사례, 주요국 간 교역관계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점검하였으며⁹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서비스교역 위축,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계교역에 나타난 주요 변화도 살펴보았다.⁹⁵⁾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

19는 내수 및 교역 둔화,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을 통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⁹⁶⁾ 또한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대면활동의 부진 지속, 고용 및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 회복이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⁹⁷⁾ 한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변화, 반도체 경기 등을 점검하여 수출여건의 변화를 평가하였다.⁹⁸⁾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업자수 감소도 대부분 취약부문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⁹⁹⁾ 또한 최근 일시 휴직자수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향후 고용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⁰⁰⁾

물가 측면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은 대면서비스 품목과 같은 수요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⁰¹⁾ 주요 선진국에서도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 무상교육 확대 등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번 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차원

94)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2월)

95) 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국제경제리뷰, 2020년 12월)

96) 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3월)

97)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요인 점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9월)

98)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수출여건 점검 및 전망 평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6월)

99)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8월)

100)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9월)

101)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BOK 이슈노트, 2020년 11월)

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²⁾ 또한 향후 국가간·계층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으며¹⁰³⁾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⁴⁾ 아울러 금번 위기가 혼인·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¹⁰⁵⁾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 등 가계의 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⁰⁶⁾ 또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비중 확대 등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구조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⁷⁾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

진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거시계량모형 BOK20을 개발하여 모형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연구원 조사연구 강화

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¹⁰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¹⁰⁹⁾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에 연구역량을 집중 투입하였다.

금융·외환시장 리스크 요인¹¹⁰⁾, 부동산¹¹¹⁾, 통화정책¹¹²⁾, 산업정책¹¹³⁾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디지털화폐¹¹⁴⁾ 등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도 발표하

102)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단행본, 2020년 6월)

103)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12월)

104)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조사통계월보, 2020년 11월)

10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BOK 이슈노트, 2020년 12월)

106)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조사통계월보, 2020년 2월)

107) 우리나라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조사통계월보, 2020년 12월)

108)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8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BOK 이슈노트, 2020년 9월)

1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6월)

110)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Network-Based Measures of Systemic Risk in Korea(BOK 경제연구, 2020년 3월), Cross-border Trade Credit and Trade Flows during Financial Crises(BOK 경제연구, 2020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조사통계월보, 2020년 10월), Credit Market Frictions and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BOK 경제연구, 2020년 11월), 자본유입과 물가상승률 간의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아시아의 8개국 소규모 개방경제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1) House Price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BOK 경제연구, 2020년 5월), Consumption Dynamics and a Home Purchase(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2)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The Excess Sensitivity of Long-term Interest rates and Central Bank Credibility(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3)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분석: 사업체 자료 이용(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내수전환 결정요인 분석(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114)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ax Evasion,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였다. 또한 노동생산성¹¹⁵⁾ 및 성장¹¹⁶⁾,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¹¹⁷⁾ 등 당면한 구조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전망 모형¹¹⁸⁾ 및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¹¹⁹⁾ 등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도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북한경제¹²⁰⁾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였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전에 「2020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2021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미개최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였다.

반면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강화 노력은 꾸준히 이어 나갔다. 9월에는 「2020 Annual Meeting of the CEBRA」, 10월에는 「2020

FMA Annual Meeting」 Kafa 세션을 한미재무학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이를 통해 최신 경제이론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12월에는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¹²¹⁾」을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의 연구 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¹²²⁾」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115)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BOK 이슈노트, 2020년 6월),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BOK 이슈노트, 2020년 7월)

116) 산업구조조정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6월),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을 하락과 원인(BOK 경제연구, 2021년 1월)

117)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후방 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5월)

118) 상태공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깃스표본추출 접근(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Common Factor Augmented Forecasting Models for the US Dollar-Korean Won Exchange Rate(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Vulnerable Growth: A Revisit(BOK 경제연구, 2020년 10월)

119)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Analyses and Predictions through Deep Learning(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120)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주제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수입을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3월),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 평가(BOK 경제연구, 2020년 7월),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을 추정: 1956~1989년(BOK 경제연구, 2020년 7월), 북한의 자본소득 추정 및 시사점(BOK 경제연구, 2020년 11월)

121) 2017년부터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22) 위원장(부총재), 부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12인의 운영위원(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정책여건 하에서 시급한 정책현안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 상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자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정책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발표하였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

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7대 주력 제조업(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조선·휴대폰)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산업의 동향을 본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련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보고서」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지역산업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지역경제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진단자료, 온라인쇼핑 성장, 지역상품권 도입 등 지역경제 현안 분석자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운용성과 점검자료, 지역 내 소비구조, 인구변동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심층분석자료 등을 작성¹²³⁾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경기지역 대기업-

123) 2020년 중 총 79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지역본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 연계성 분석 및 균형발전 방안,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정주·방문 인구 추정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¹²⁴⁾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소통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한편 원격근무·교육 확산으로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¹²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 지역 내 생산·분배 간 불일치 요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¹²⁶⁾하여 지역사회와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적기에 제공하여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의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¹²⁷⁾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¹²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¹²⁹⁾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브렉시트 협상, 미 대선 등 금융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환경 변화와 생산·소비·고용 등의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본부에 제공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웹 세미나 개최 및 참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확충하였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24) 2020년 중 총 21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125) 2020년 중 총 5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26) 2020년 중 총 20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27) 2020년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8) 2020년 중 총 109개의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129) 2020년 중 총 538개의 현지정보를 작성하였다.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 등 5대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자료 수집, 편제 인력 관리 등에서 애로가 커졌으나 작성통계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공표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 수요 및 작성 환경에 대응하여 뉴스 기사, 신용카드 및 스캐너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통계편제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속보성 있는 경기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 30.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 문	종 류
국민계정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¹⁾ ,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
가계부문, 미시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²⁾
물가지수	생산자물가(PPI), 수출입물가(EPI, IPI)
기업통계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경제심리지수(ESI)
금융안정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지급결제	지급결제통계
기 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³⁾

주: 1) 통계청과 공동

2) 통계청·금융감독원과 공동

3) 금융감독원과 공동

자료: 한국은행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등 최근 경제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거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은 법인 및 비법인 등 기업형태별 세부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새로 편제함으로써 기업대출 및 중견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지 및 국외투자통계 개편에 맞춰 2009년 이후 자금순환표의 국외부문을 소급편제하여 국민계정통계 간 정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G20, IMF 등이 주도하는 DGI-2¹³⁰⁾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 제도

130) Data Gaps Initiative: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DGI-2).

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상세채권통계 (Securities Statistics),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 해외증권투자통계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의 작성 준비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 밖에 기업경기조사(BSI)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2018년 법인세 신고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개편하였으며, 시험조사를 거쳐 8월부터 새로운 표본에 의한 통계 편제결과를 공표하였다.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모임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통계협력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통계를 연구하고 최신 이론과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포럼」을 개최(11월)하였다. 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분류모형, 경제뉴스를 이용한 경제심리지수 작성 등에 관한 연구기법,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언어지능기술의 최신 동향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한편 통계청과의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통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정착 방안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였다.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42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동 강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온라인 등 적절한 강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실시하였다.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운영하면서 국제통계를 확충하고 웹페이지 표준 전환, 자동검증 기능 도입을 통한 데이터 정도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계 이용자조사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통계 작성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경계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 4월에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